

OECD *Multilingual Summaries*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Summary in Korean



Read the full book on: 10.1787/9789264311800-en

디지털 시대에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 전환의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기회와 리스크

한국어 개요

디지털 시대에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 전환은 사람들의 삶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디지털 기술은 단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의사 소통하는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 인한 급속한 전환을 파악에 통계적인 자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의 삶에 대한 디지털 영향의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면서 일부 데이터 격차의 중요성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삶의 질」(How's Life?) 시리즈의 본 첫 번째 발간물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주고 있는 디지털 전환

여러 OECD 보고서가 경제와 사회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전체로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삶의 질」 복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제1장은 본 보고서에서 이용된 방법론과 결과의 개요를 제공한다. OECD 복지 프레임워크가 사람들의 복지의 11가지 핵심 측면(소득 및 자산, 일자리와 수익, 주택, 건강 상태, 교육 및 기술, 직장-가정의 균형, 시민 참여 및 가버넌스, 사회적 연결, 환경의 질, 생명·신체의 안전, 주관적 복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제1장에서는 ICT 접근성과 이용도를 디지털 전환의 교차단적 측면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사람들의 복지에서 39가지의 핵심적 영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정보 가용성의 범주를 확대시키고 인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에 따라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사이버 괴롭힘, 가짜 뉴스나 사이버 해킹의 부상 등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리스크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영향에 대한 33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20개는 디지털 기회를 모니터링 하는 지표이며, 13개는 디지털 리스크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은 국가의 디지털 현황을 평가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관련 시민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핵심 디지털 영향의 적용 범위 불완전성으로 인해, 경험적 분석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통계학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향상시키고 통계 어젠더를 진전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들의 삶 향상

제2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 준 사람들의 복지의 각 측면에 대한 기회와 리스크를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은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찰된 내용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회의 혜택을 받는 지는 첫 번째는 일부 역량 요건을 충족 유무이며 두 번째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작동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교육, 건강 정보, 소비자 상품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시키며, 재택근무를 통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가정 및 도시 수준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활동을 더

속 효율적으로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은 이를 사용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디지털 격차가 부각됨으로 주요한 불평등 리스크를 수반한다. 이러한 역량에는 순수한 디지털 역량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세계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감정적 및 사회적 기술도 포함된다. 편의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고 불리는 이러한 역량/기술을 복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디지털 및 현실의 삶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디지털 기술의 남용과 관련된 정신 건강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전 조건이 된다. 두 번째 유형의 디지털 리스크는 사이버 괴롭힘과 사이버 보안침해 등의 안전이슈와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디지털화 작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한 디지털 기회의 조성, 디지털 리터러시의 광범위한 확대, 강력한 디지털 보안이 요구된다.

인터넷 접근성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디지털 기회, 다면적인 특성을 띠는 디지털 리스크

디지털 전환의 기회 및 리스크 지표가 존재하면, 이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고 해당 국가의 상대적인 디지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전환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이끄는 동인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범주를 벗어나는 사안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찰된 일부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기회와 리스크는 모든 국가에서 상관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즉 이 두 사안은 기계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는 성공적인 정책 프레임은 디지털이 크게 발전된 환경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회는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성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성은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그 특징에서 매우 다양하며, 하나의 핵심동인으로 특정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디지털 보안사고의 확산은 디지털 사회의 성숙도와 국가의 디지털 전략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스크의 예측요인으로 강력하게 파악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영향에 대한 희소한 증거, 논쟁으로 남은 많은 주제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은 삶의 모든 측면과 모든 OECD 국가들을 적합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일련의 불완전한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향후의 통계적 작업의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진척상황에 대한 보완적 수집방법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통계청과 다른 데이터 수집기관들은 디지털 전환의 복지 영향에 대한 증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본 보고서에 논의된 많은 영향들이 여전히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온라인 네트워킹 사이트의 영향,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신건강의 효과, 업무 자동화의 효과 등과 같은 핵심적인 기회와 리스크는 연구자와 분석가에 의해 여전히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 보고서는 현재 파악되는 증거들을 종합하고 있지만,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다른 많은 주제들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고 심화될 필요가 있다.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Read the complete English version on OECD iLibrary!](#)

© OECD (2019),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311800-en